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기욱	영문	GIOK KIM
파견 국가	인도네시아		파견 대학	Telkom Univ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주위에 여러 친구들이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좋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나,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교환학생이 충분히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국가선택 이유는 대부분 선진국을 많이 지원하는데, 나의 경우는 이전에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정말 좋은 편이고, 물가도 한국에 비해 저렴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먼저 출국 전 서류 준비를 하면서 확실하게 Telkom Univ International office에 개강일은 언제인지 언제 학교에 도착해야 하는지 제대로 물어보고 미리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만 가능하다면 학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미리 물어보고 가는 것이 매우 좋다. 비자 발급은 경북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사회문화 비자를 받는데 서울이나 부산까지 가야해서 그냥 비자대행으로 편하게 발급받았다. 돈이 조금 더 들지만 교통비 등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비용은 아니다. 기숙사 신청은 자동으로 되어있고 학교에 도착하면 바로 방을 배정해 준다. 수강신청은 미리 하지 않고 학교에 도착하면 해당 학과장님과 함께 신청한다. 하지만 전공과 다른 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공과 다른 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전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되면 정말 힘들어한다. 나의 경우는 같은 전공수업을 들어 어렵지 않았지만 같이 갔던 친구는 과가 달라서 정말 힘들어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크기는 정말 크다. 금오공대의 다섯 배 정도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5개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지리가 험갈릴 수 있으므로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는 것이 좋다. 지리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다. 하지만 10분 거리 내로 나름 큰 쇼핑몰이 위치해 있고 택시를 타고 나가면 좋은 쇼핑몰 등이 정말 많다. 나의 기준으로는 한국과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깨끗하고 좋은 쇼핑몰들이 많다. 심지어 롯데마트, 롯데리아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동은 그렇게 더운 곳이 아니다. 한국 여름보다 훨씬 시원하다. 연중 23-25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얇은 긴팔도 입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라서 긴팔과 긴바지를 준비해 가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자라면 짧은 나시, 짧은 바지 등 너무 민망한 옷이 아니면 입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어른이나 교수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학교수업에 갈 때도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까만색 슬랙스와 하얀 셔츠를 입고 가는 것이 좋다. 캐주얼한 복장을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도 계시고 공학대학 학생들은 무조건 그렇게 입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쇼핑몰에서 한국인이 그나마 좋아하는 스타일의 쇼핑몰은 자라, H&M, 유니클로 밖에 없으니 한국에서 청바지나 슬랙스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 정말 살 바지가 없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나는 전반적으로 수강신청을 잘한 편이어서 수업이해도 쉬웠고 수업이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서

이해도도 높았던 것 같다. 교수님들도 대부분 여성분이 많으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었다. 수업에서 과제를 주거나 시험을 칠 때는 신경 써서 준비하고 공부한다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어학능력이 많이 부족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업은 100%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활하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작문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가 이전 보고서에는 무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18년 1학기 파견은 기숙사비를 내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냈다. 기숙사는 솔직히 많이 좋다고는 못하겠다. 하지만 침대와 옷장 그리고 개인으로 방을 주는 것은 매우 좋다. 개인 공간이 분리되어 사생활 침해가 없다. 하지만 가끔 도마뱀이나 바퀴벌레가 놀러 온다. 그럼 조금 같이 있다가 밖으로 내보내면 된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인데 한국처럼 샤워기를 틀면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상적인 샤워실이 아니다. 뜨거운 물은 포트기에 받아서 끓여서 써야한다. 차가운 물은 수도에서 바로바로 나온다. 솔직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씻는 문제에 민감한 친구들은 많이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물 자체도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한국에서 파는 샤워기 필터 같은 것을 사 와서 쓰는 걸 추천한다. 생활비는 부모님이 카드로 입금하면 학교 ATM에서 뽑아서 썼다. 외화 출금 카드는 하나VIVA체크카드 추천한다. 수수료가 매우 다. 그리고 음식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의 경우에는 힘들지 않았다. 그냥 학교 앞 식당에서도 치즈피자 돈까스, 스파게티, 치킨까스 등을 화 1500원 정도면 사 먹을 수 있고 과일 스무디는 700원 밖에 안한다. 향신료가 들어가는 음식이 싫다면 안 먹으면 된다. 학교 밖에 나가면 한국 음식점도 많다. 하지만 너무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나므로 한국에서 지사제 사오는 것을 추천한다. 인도네시아 음식 조리법 자체가 많이 기름지다. 그래서 설사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생활비는 한달 30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이외에 놀러가거나 쇼핑을 하면 50만원까지도 쓰는 것 같다. 하루에 평균 식비는 푸짐하게 먹었을 때 한화 5000원 이하이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이 대학의 인터네셔널 버디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다. 영어도 매우 잘하고 친절하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들 때에 버디 친구들과 놀러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잘 지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요리대회를 열거나 카니발 축제 등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본인이 참여하고 싶거나 하면 버디들이 다 알려주고 도와준다. 그리고 비자연장 문제나 학교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인터네셔널 오피서들이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신다. 좋은 분들이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

나의 경우엔 동아리 체험을 못 해봤고 학교 안에 헬스장이 있다. 가격은 한 달에 한화 5000원 정도 하는데 시설은 잘 모르겠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날씨가 일년 내내 더운 나라에 사는 친구들인 만큼 특히 학교 수업에 정시 출석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그 전에 그 수업이 연달아 있다면 모두 정시 출석하지만 아침 첫 수업이나 오후 첫 수업은 솔직한 10-20 분 늦어도 교수님이 너그럽게 봐주신다. 다들 그렇게 한다. 하지만 약속 시간은 칼같이 잘 지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약속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친구들도 가끔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비싸고 잘 안 판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당에 가거나 따로 돼지고기요리를 취급하는 식당에 가서 먹어야 한다. 하지만 소고기가 정말 싸다. 그래서 소고기나 닭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가 정말 쉽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열심히만 배우면 2달 정도 되면 혼자 나가서 쇼핑하고 밥 먹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어디를 가든 항상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과 교수님, 그리고 인터네셔널 직원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어서 정말 감사했고 거기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도 모두 좋은 친구들이어서 한국이 그리울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영어를 매일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어도 매일 사용하다 보니 어학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시아어와도 비슷해서 주변국을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기숙사 책상,
인도네시아 고양이는 정말 착하다.



기숙사 책장, 크다.



브런치, 한화 3,500원



인터네셔널 버디랑 카페에서



해질녘, 현지인전용 기숙사 A동



공부했던 GKU 건물